

<한국언론정보기술인협회> “AI 시대, 언론사의 서비스 혁신 전략” 세미나, 2025. 9. 12.(금)

AI 시대, 언론사의 혁신 전략을 위한 질문 10가지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제의 제기

I. 언론 산업

- 1) AI는 콘텐츠의 혁신인가? 경영의 혁신인가?
- 2) AI 에이전트에게 뉴스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3) 플랫폼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4) 언론사가 원하는 방식의 유료화는 가능한가?
- 5) 그렇다면 언론의 새로운 수익원은 무엇인가?

II. 저널리즘

- 1) AI는 저널리즘에 대한 위협인가 기회인가?
- 2) AI가 원하는 신뢰, 언론은 어떻게 신뢰를 향상 시킬 것인가?
- 3)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유지 가능한가?
- 4) 모두가 전문가가 된 시대 언론의 전문성은?
- 5) 기자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결론을 대신하며..

- 2022년 11월 말 ChatGPT가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반 이상 지난 지금 지나면서 여러 가능성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등장 초반의 놀라움과 충격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해 보임
 - 하지만,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외치면서 등장하고 있음
 - 자동 기사 작성, 팩트 체크, 대규모 문서 자료 처리, 다국어 번역 등의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생성AI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접적 영향보다는 향후 전망이 주류인 상황임
- 기술은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겠지만 그 놀라움 때문에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언론은 이 기술이 가져오는 혁신의 현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음
 - 언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산적해 있는데, AI 기술의 활용이 단순히 기사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적 차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언론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언론사들은 AI를 콘텐츠 제작의 혁신 도구로 활용할지, 경영 효율화의 수단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동시에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도 저널리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더 나아가 AI가 정보 생산과 유통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면서, 언론의 전통적인 게이트키퍼 역할과 의제 설정 기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개인이 AI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언론의 차별화된 전문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교육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렇듯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과 저널리즘적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10가지 핵심 질문들을 통해 언론사가 AI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근본적인 이슈들을 다뤄 보고자 함

1. 언론 산업

- 보도자료의 기사 변환, 작성된 기사의 단신 뉴스화, 기존 뉴스의 SNS 형식 변환, 논조 바꾸기, 자료의 요약 및 정리, 다국어 번역 및 기사화, 기초 문헌 탐색 및 요약,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유튜브 영상 요약 및 번역, 기사 내 참고 이미지 자동 생성, 참고 영상 자동 생성, 데이터 파일 분석 및 시각화, 텍스트 및 수치 데이터 분석 및 추출, 긍부정 분석 등 내용 분석, 이미지 및 영상 조작 여부 판단, 코드 작성, MCP, 인포그래픽 등 생성AI를 뉴스룸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 자료 처리, 데이터 분석, 녹취 내용 활자화 등을 통한 1차 기사 작성 작업에 AI 활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떤 사안을 취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어떤 사안을 최종적으로 보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취재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 최종적인 사실 여부 판단을 내리는 것 등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기자의 본질적 업무는 생성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으며 보완할 뿐임
 - AI 활용으로 줄어든 시간을 취재에 더 투여하는 방식의 콘텐츠 혁신은 가능, 단순 업무는 생성AI에게 과감히 맡기고 기자의 본질인 취재에 집중
- 그런데, 취재 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언론사의 경영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기자들에게 AI 활용을 강조하고 콘텐츠 측면에서의 혁신은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경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족해 보임(일부 외국어 번역 사이트 제공 수준에 그침)
 - 내부의 경영적 의사결정도 AI로 대표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콘텐츠 혁신만을 강조할 뿐 경영 혁신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음
 - 콘텐츠 혁신이 실제로 상품으로서의 기사 가치와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정확히 측정하고, 기자 평가에 있어서도 페이지뷰 등 단순 지표를 넘어 다양하고 정교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콘텐츠 혁신에 대한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인공지능의 확산은 콘텐츠 혁신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 혁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1. AI는 콘텐츠의 혁신인가? 경영의 혁신인가?

6

언론사	국가	명칭	주요 특징
파이낸셜타임즈 (FT)	영국	'ASK FT' 챗봇	- 자사 콘텐츠 학습한 챗봇 서비스 - 앤스로픽의 '클로드' 기반 작동 - 유료 구독자 대상 제공
가디언(Guardian)	영국	'Ask the Guardian' 챗봇	- 자사 기사 기반 챗봇 서비스 - 클로드 모델 활용, 내부 테스트 중
워싱턴포스트	미국	'WP Climate Change' 챗봇	- 기후 변화 특정 주제로 한정된 챗봇 - 2016년 이후 발행 기사 데이터베이스 활용
데일리 매버릭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사 자동 요약	- 챗GPT 활용한 기사 제목 및 요약 자동 생성 - 편집자 최종 검토 진행
아프톤블라데트	스웨덴	기사 자동 요약	- GPT 활용한 기사 자동 요약 - AI 사용 내역과 품질 검증 명확히 표시
BBC	영국	'오리엘(Oriel)' 프로젝트	- 멀티모달 모델 활용 이미지 검색 효율화 -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 활용
로이터	글로벌	'로이터 커넥트'	- 자체 개발 멀티모달 모델 활용 - 영상/이미지 자동 태깅 시스템
VG	노르웨이	AI 애니메이션	- 범죄 다큐멘터리용 영상 자료 생성 - Stable Diffusion, Midjourney 활용
세마포	미국	'위트니스'	- AI 도구로 이슈 스토리 시각화 -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 AI 사용 표시
El Surti	파라과이	'EVA' 챗봇	- 실제 인터뷰 기반 응답 생성수감 여성과의 대화 경험 제공 - 챗GPT 3.5 turbo 모델 활용
Cuestión Pública	콜롬비아	'오딘(Odin)' 프로젝트	-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RAG 기술 활용 - 정치인 정보 자동 요약 및 연결
The City	미국	뉴욕 지역 보도 분석	- 챗GPT 활용한 지역 보도 형평성 분석 - 기사의 지리적 정보 추출 및 시각화
뉴욕타임스	미국	'브랜드매치'	- 광고 타겟팅 도구 - 광고주 기획서 분석 및 맞춤 독자층 선정



2. AI 에이전트에게 뉴스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7

오늘의 한국 주요 뉴스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미지 출처 · 8 단계

KBS 뉴스
KBS 뉴스

연합뉴스
최신뉴스 - 연합뉴스

YouTube
연합뉴스TV - YouTube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채널 24)

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는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에서의 한국인 대거 체포 사건, 정부의 대규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와 긴급 대응 등이 중심입니다. [ytn +2](#)

미국 조지아 공장 한국인 집단 체포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으로 약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고, 조기 석방을 위해 인사 책임자를 급파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news.daum +1](#)
- 외교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석방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금시설에 수감된 한국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1](#)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 정부는 오늘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등 공급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youtube +2](#)
- 서울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 공급, 연평균 약 27만 호 신규 착공 계획으로 주택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news.sbs +1](#)

폭우 피해 및 재난 대응

- 군산 지역에 시간당 152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최대 120mm 추가 예보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ews.daum](#)
-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통해 급수와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강릉 등지에선 저수율 하락 및 재난사태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1](#)

추가 질문하기...



오늘의 한국 주요 뉴스를 말로 해주세요.

오늘의 한국 주요 뉴스



Reuters

South Korea says US release of video showing workers' arrest was regrettable

오늘



Reuters

South Korea vows support to Koreans arrested in US immigration raid

오늘



The Sun

Mauricio Pochettino already under huge pressure as USMNT faceplant in South Korea friendly ahead of World Cup

오늘

다음은 2025년 9월 7일 기준 한국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영상 공개에 대한 한국의 반발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현대-엘지 배터리 공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가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Reuters](#)
- 이번 단속으로 단일 사업장에서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Reuters +1](#) [The Washington Post](#)
- 이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은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대통령도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 +1](#)

미 남자 축구대표팀,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0-2로 패배

- 미 남자 축구대표팀(USMNT)은 9월 6일 열린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0-2로 패하며 월드컵 준비에 경고를 겪었습니다. [The Sun](#) [뉴욕 포스트](#) [가디언](#)
- 손흥민이 첫 골을 터뜨리고, 이동경이 도움을 받아 후배의 골로 연결시키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The Sun](#) [가디언](#)
- 미국 측은 조직력과 마무리 능력 부족을 자인하며,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 AI 에이전트에게 뉴스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LLM 다음 이미 적용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특성: 뉴스 미디어의 관점에서
 - **자율성:**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 마치 사람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파악해 다음 동작을 결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처럼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 정의가 어려운 뉴스 가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님
 - **목표 지향적 행동:**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 무작위적 반응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보임 → 미리 정의되지 않은 뉴스 미디어는 노출되지 않음
 - **적응과 학습:** AI 에이전트는 자신의 경험과 실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함. 추천 AI가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한 추천을 제공하는 것처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함 → 처음에 노출되지 않거나 초기 주목도가 떨어지면 노출되기 어려움
 - **복잡한 의사결정:** 단순한 선택이 아닌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결정함. 주식 거래 AI가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해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 → 복잡함의 고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되어야 함
 - **환경 인식:** 센서나 데이터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함. 로봇이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피해 경로를 설정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해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꼭 필요한 뉴스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뉴스를 우선 노출
- 이미 AI가 적용된 검색 시장에서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인용과 그로 인한 트래픽 유입이 낮아지는 '제로 클릭' 현상 발생 중
 - ChatGPT, Gemini, Claude 등 AI 검색 서비스의 전체 인용 중 저널리즘 콘텐츠는 27%, 시의성 있는 검색의 경우 절반(49%)이 저널리즘 콘텐츠 인용
 - Reuters, FT, Axios, Time 등 권위 있는 언론사를 자주 인용하며, 금융/보험, 정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저널리즘 콘텐츠 많이 인용
 - 하지만 OpenAI는 1,700회 크롤링당 1회, Anthropic은 73,000회 크롤링당 1회만 해당 사이트를 추천하여, 광고 수익 기반인 트래픽은 보내지 않는 불공정 구조
 - 언론사들은 '어떻게 인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일반 이용자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라는 생존을 건 고민
- AI 에이전트는 인용을 통한 출처 링크도 제외한 채 아예 출처를 보여주지 않고 요약한 뒤 모아서 보여줄 가능성이 큼

3. 플랫폼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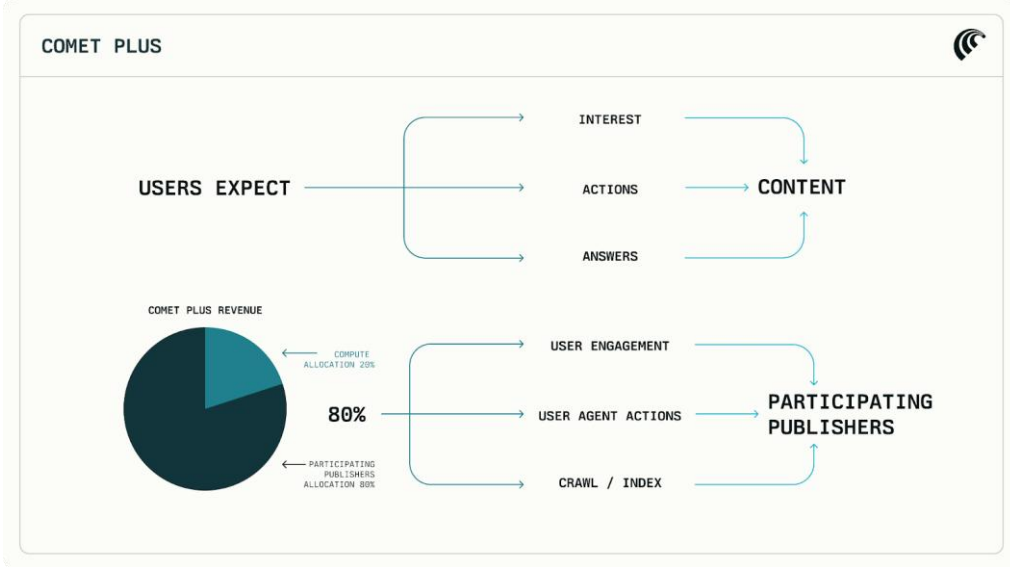
AiTEMS 사용자별 이력을 분석하여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AiCall AI 기능을 기반으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Chatbot 마케팅,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을 생성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Dubbing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영상에 합성할 수 있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OCR 인쇄물 속 글자를 추출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Speech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며 음성 메모, 자막, 비서, 챗봇 등 다양한 음성 인식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CLOVA Studio Update HyperCLOVA 커스텀 모델 제작을 지원하는 AI 개발 도구 자세히 보기 >	CLOVA Voice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음성 합성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Speech Recognition(CSR) 사람 목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Sentiment 글에 담긴 감정을 분석하고 감정이 표현된 부분을 추출해 주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Papago Translation 입력한 텍스트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계 번역 서비스 자세히 보기 >	Papago Image Translation 이미지 속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Korean Name Romanizer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변환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Summary 문서를 요약하고 핵심 문장을 추출해 주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Ncloud TensorFlow Server TensorFlow와 머신러닝 패키지가 설치된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Ncloud TensorFlow Cluster CLI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TensorFlow 분산 병렬 처리 환경을 구성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GreenEye 이미지를 판독하여 유해 콘텐츠를 탐지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CLOVA NSML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연구하거나 개발할 때 인프라 제약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딥 러닝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구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세히 보기 >

- 언론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 언론사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주도해야 하지만, 당장 생존이 급한 언론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님
 - 최근 포털 뉴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포털에서 기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인링크 방식 대신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격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
 - 지금까지는 인링크 방식 덕분에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 경쟁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아웃링크로 바뀌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든 독자가 기사를 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장소는 결국 자사 홈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음
- 독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홈페이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돈을 내면서도 어떤 플랫폼에 종속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완전 유료화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
 - 해외 언론사들은 변동성이 큰 광고 시장을 대체할 안정적 수익원으로 여겨졌던 전면 유료화(hard subscriptions) 대신 유연한페이월, 멤버십 프로그램 및 다양한 광고 모델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구독 중심 전략은 초기에 상당한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
- 최근 사례에서 보듯 언론사들은 기존 콘텐츠에 단순히 페이월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음
 -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트럼프 시대 정점 이후 구독자가 3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가격 책정 구독 전략을 고려하고 있음
 - 한편 가디언은 작년 기준 일회성 기부자 60만명, 멤버십 회원 및 정기 기부자 34만명 등 총 117만명의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원 수익이 광고 수익보다 많은 구조를 만들어냈음
-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사에 가장 적합한 유료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함
 -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SBS,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이 유료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음
 - 그런데, 언론사의 유료화 경쟁 상대는 다른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임
 - 현재 신문사들은 선택과 집중의 부재로 너무 많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 발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킬러 콘텐츠를 실제로 돈을 내고 구매하느냐는 여전히 의문임
- 언론의 공익적 가치와 수익성의 균형 모색 필요
 - 후원 모델의 경우 언론사 브랜드와 존재 가치를 지지하는 독자들의 연대 의식에 기반하여,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중요함
 - 정보로서의 뉴스와 사회 공공재로서의 저널리즘의 분리, 공익적 서비스로서 저널리즘의 가치 제고 등의 검토를 통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무 공급 등의 정책적 방향도 필요: 팬데믹 당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뉴스를 무료 제공한 것처럼, 플랫폼과 AI 서비스에서도 공익적 가치와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5. 그렇다면 언론의 새로운 수익원은 무엇인가?

11



Substack's Core Growth Loop

User Generated, User Distributed Content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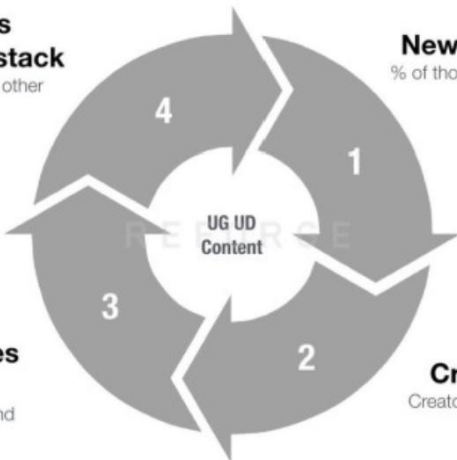


Potential Creators Learn About Substack
Other potential creators see other creators using Substack.

New Creator Signs Up
% of those potential creators sign up.

Creator Distributes Content
Unique content is indexed and ranked by search engines.

Creator Creates Content
Creator creates content for their Substack.



■ B2C가 아닌 B2B로: 유료화의 주 대상은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

- 최근 퍼플렉시티가 코멧 플러스를 매개로 언론사와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명시했음 : 언론사의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면, 코멧 플러스 구독으로 번 돈의 8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임
- AI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 기사보다는 페이지에 갇힌 보다 흥미 있으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에 대한 독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한 하프 페이지 등을 실행하여 브랜드 신뢰도와 퀄리티를 제고하고 일반 이용자가 아닌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 AI 플랫폼이 가장 원하는 언론사의 콘텐츠는 고품질의 의견임

■ 언론사의 브랜드를 활용한 '느슨한 프리랜서' 연대

- 기사를 직고용하는 대신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언론사의 브랜드 우산을 제공하고 프리랜서 기자들의 콘텐츠를 활용
- 언론사는 최소한의 취재기자와 프리랜서 기자들의 콘텐츠 검증과 편집 등을 위한 인력만 고용하고 이 콘텐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집중
- 최소한의 고품질 보도는 자체 인력이 수행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중심의 상품 콘텐츠는 프리랜서를 활용하면서 양적 확대
- 언론사 간의 연대를 통한 브랜드 확장과 신뢰도 제고도 가능

2. 저널리즘

심층 포렌식 분석 결과

1. EXIF 메타데이터

- 결과: 없음
- 해석:
 - 촬영 기기, 시간, 위치, 편집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SNS, 메신저, 캡처 앱, 일부 편집 앱에서 저장 시 자동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IF 부재 = 편집 조작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원본 여부를 100%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2. 노이즈 및 픽셀 패턴 분석

- 분석 지표: 노이즈 분산 ≈ 270.6
- 해석:
 - 일반적으로 합성·편집된 영역은 주변보다 픽셀 노이즈 패턴이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 하지만 이 이미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노이즈 분포**를 보이며, 경계선 주변에 인위적인 블러·스머징 흔적이 없습니다.
 - 따라서 **편집·합성 흔적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3. 색상 채널 및 반사광 패턴

- 광원 일관성:
 - 랩 위 반사광, 액체 표면의 굴절, 트레이의 그림자가 모두 자연스럽게 일관성을 유지.
- Red / Blue 채널 비교:
 - 각 채널별 색상 변화가 부드럽고 연속적이며, 인위적인 색상 블록(합성 흔적) 없음.
- 추정: 원본 사진일 가능성이 높음.

4. 종합 결론

분석 항목	결과	신뢰도
EXIF 메타데이터	없음 → 원본 여부 100% 보장 불가	중간
픽셀 노이즈	합성 흔적 없음	높음
색상/광원	자연스러운 패턴 유지	높음
최종 판단	조작 가능성 매우 낮음	약 90%

- 생성AI는 기자들이 하는 사실 확인 작업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언론계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어떤 내용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성AI가 만든 글들은 일부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기존 내용을 베껴서 짜깁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가려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음
 -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검증된 믿을 만한 뉴스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본업인 기자들에게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건져내는 새로운 역할과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생성AI는 오히려 그동안 각종 허위정보와 편향 보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던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주었음
 - 이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사 수정 이력제', '삭제한 기사들의 목록과 삭제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 등 언론사 운영을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언론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볼 필요

2. AI가 원하는 신뢰, 언론은 어떻게 신뢰를 향상 시킬 것인가?

14

	주요 결과
실험 집단	(1) 기사 수정/삭제 개수만 제공 (2) 기사 수정/삭제 내역 목록 제공 (3) 기사 수정/삭제 내역 목록과 사유 제공
기사 수정/삭제 내역 공개제에 대한 태도	- 부정적(심각, 복잡, 어렵다) 평가는 집단 간 차이 없음 (3) 집단이 (2)보다 더 긍정적(유용, 중요)으로 평가
기사 신뢰도	(1), (2) 집단보다 (3) 집단의 기사 신뢰도 높음
기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기사의 질	(1) 집단이 (2), (3) 집단보다 기사의 질 낮게 평가
기자 신뢰도	(1) 집단보다 (3) 집단의 기자 신뢰도 높음
언론사 호감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언론사 재이용 의향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뉴스 기사 추천 및 공유 의향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 AI로 인한 허위정보가 많아질수록 신뢰도 높은 언론사 구독이나 방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AI 오정보 우려 커질수록 '신뢰 언론' 방문 25% 증가"**
 - 실험 참여 신문사의 웹사이트 일일 방문 횟수가 즉시 25% 증가하고 이 효과가 2주 이상 지속됨, 5개월 후 구독 유지율이 1.1% 상승하여 구독 해지율이 약 3분의 1 감소함, AI 퀴즈를 어렵다고 느낀 집단에서는 뉴스 구독료 지불 의사가 35% 증가함
 - AI 가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검증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만드는 효과 발생, AI 시대의 정보 혼란이 제대로 된 언론사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철저한 사실 확인과 투명한 보도를 통해 독자 신뢰를 구축하면, 더욱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 제시
-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향상 시킬 수 있는가? 지난 해 수행한 '언론 신뢰도 향상 방안' 연구에서 투명성 장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함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방법인 '기사 수정 이력제'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
 - 왼쪽 표와 같이 기사 수정/삭제 내역을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니 관련된 정보의 맥락과 이 유가 신뢰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
 - 기사 오류/문제 신고 버튼은 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신뢰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3.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은 유지 가능한가?

15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

전체 뉴스 이미지 동영상 짧은 동영상 쇼핑 웹 더보기 ▾

◆ AI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 후반 이후 미국 무기 지원 중단과 서방의 재고 소진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매우 취약해졌고,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러시아 대규모 공세로 우크라이나 병력이 포위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 전체 철수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유럽의 결정과 서방의 지원 여부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쟁의 양상 변화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

2023년 초부터 이어진 교착 상태가 우크라이나의 2차 반격 실패 이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24년 후반,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과 서방 무기 재고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선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

2024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는 대규모 공세를 펼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쿠르스크에서 병력의 상당수가 포위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상황 [🔗](#)

병력 및 무기 부족: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작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방어 전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지원 중단:

미국의 무기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및 협상

-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의 관점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은 생성AI 시대에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 왼쪽 그림과 같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적용되면 논쟁을 피하려는 생성AI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언론의 관점이 사라짐**
 - 생성AI 기술 플랫폼들은 발생 사안에 대해 환각 등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기사만 외부 데이터로 유입하여 답변을 생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을 알리고 기사를 읽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보다 보다 좁은 폭을 설정할 필요**
- 언론은 앞으로 의제 설정을 위해 **커뮤니티 페이퍼**로 전환할 필요성
 - 확실하게 우리 언론의 기사를 소비하는 이용자 층을 구축해야 의제 설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언론사는 느슨한 프리랜서들의 연대 형식을 지향하면서 우리 기자만이 아닌 **우리 언론사를 통해 말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관을 포괄할 수 있어야 의제 설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생성AI에게 일부러 크롤링을 허용해 답변의 경향성을 바꾸고 자신들의 의견을 답변에 포함시키려는 일부의 언론의 시도들도 전망할 수 있음

4. 모두가 전문가가 된 시대 언론의 전문성은?

16

다음은 주어진 기사를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1~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1. 사실성 (8/9)

- **평가:** 기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높음.
- **근거:** 정부 발표, 장관 및 정책위의장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 검증이 용이함.
- **감점 이유:** 법안 통과 여부 등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부족해, 완전한 사실 검증보다는 계획 단계의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

2. 투명성 (7/9)

- **평가:** 기자 이름(양정우, 차민지), 소속(연합뉴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됨.
- **근거:** 기사 말미에 기자 이메일을 제공해 추가 확인 가능.
- **감점 이유:** 취재 과정, 정보 출처의 다양성(예: 정부 자료 외 분석 보고서 등)은 드러나지 않음.

3. 다양성 (5/9)

- **평가:** 기사 전반이 정부와 여당 발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나 반대 의견은 포함되지 않음.
- **감점 이유:** 야당,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이 빠져 있어 독자가 균형 있게 이해하기 어려움.

4. 균형성 (5/9)

- **평가:** 발표 내용에 긍정적 효과만 강조되고, 논란 가능성이나 부정적 시각은 다루지 않음.
- **감점 이유:** 검찰청 폐지, 방통위 해체 등 주요 사안임에도 반대 목소리나 우려가 전혀 실리지 않아 편향성이 일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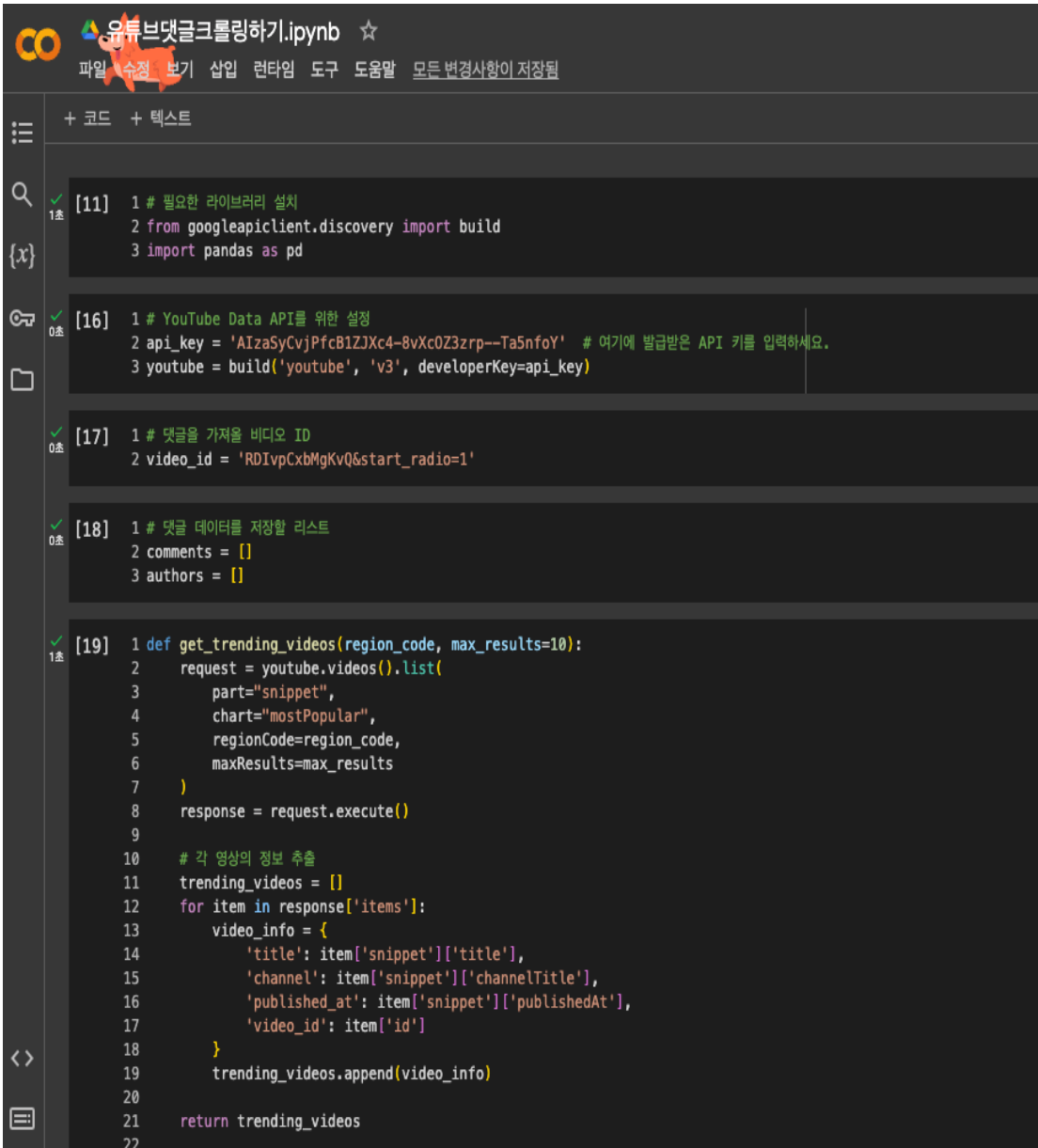
5. 독창성 (6/9)

- **평가:**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대형 이슈를 다루는 자체는 중요한 보도이나, 연합뉴스 보도 특성상 다른 언론과 큰 차별성은 없음. 
- **근거:** 주로 정부 발표문을 요약하는 수준이며, 독점적 자료나 새로운 분석은 없음.

- 왼쪽 그림과 같이 전문가의 영역이던 기사에 대한 저널리즘 관점의 가치 평가를 GPT 등 생성AI를 활용해 **어느 정도 그럴 듯하게** 할 수 있음
 - 기사의 생성뿐 아니라 평가도 AI로 가능한 상황으로 누구나 기자와 비슷하게 수행 가능
 - 최근 AI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 기사가 Wired, Business Insider 등 유력 매체에 게재돼 논란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기자와 언론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정받을지
- 학자들은 언론이 의학이나 법학처럼 독특한 지식 체계, 자율 규제, 공공서비스 정신을 가진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이는 언론인이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관점임
 -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규범과 게이트 키퍼와 같은 전문적 판단력 등인데 이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은 일반인의 도전을 겪고 있는 것임
- 언론과 언론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데, 규범적 위위와 전문적 교육 등이 일반적 방안이겠지만 **정확한 보상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르몽드가 OpenAI 및 Perplexity와의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25%를 기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
 - 전문적으로 수행한 작업 내용에 대해 언론사부터 언론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기자들이 저작권접권 거래 수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몫을 받을 법적 권리

5. 기자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17



```
[11] 1 #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2 from googleapiclient.discovery import build
      3 import pandas as pd

[16] 1 # YouTube Data API를 위한 설정
      2 api_key = 'AIzaSyCvjPfcB1ZJXc4-8vXc0Z3zrp--Ta5nfoY' # 여기에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하세요.
      3 youtube = build('youtube', 'v3', developerKey=api_key)

[17] 1 # 댓글을 가져올 비디오 ID
      2 video_id = 'RDIVpCxbMgKvQ&start_radio=1'

[18] 1 # 댓글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
      2 comments = []
      3 authors = []

[19] 1 def get_trending_videos(region_code, max_results=10):
      2     request = youtube.videos().list(
      3         part="snippet",
      4         chart="mostPopular",
      5         regionCode=region_code,
      6         maxResults=max_results
      7     )
      8     response = request.execute()
      9
      10    # 각 영상의 정보 추출
      11    trending_videos = []
      12    for item in response['items']:
      13        video_info = {
      14            'title': item['snippet']['title'],
      15            'channel': item['snippet']['channelTitle'],
      16            'published_at': item['snippet']['publishedAt'],
      17            'video_id': item['id']
      18        }
      19        trending_videos.append(video_info)
      20
      21    return trending_videos
      22
```

- 생성AI가 교정, 요약, 번역 등 기초적인 업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때 기자 훈련과의 충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음
 - 업무 숙련도가 낮은 기자들의 부족한 기사 작성 역량을 생성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빠르게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임
 - 언론사들은 신입 기자들에게 기초적인 업무를 부여하면서 기자로서 업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이 훈련 내용들은 사실 생성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부분임
 - 생성 인공지능이 이렇듯 보완하게 되면 기사 작성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기자로서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특히 신입 기자들의 경우 데스크로부터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기자 교육의 방향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자의 본질적인 역할이 왜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
- 그런데, 왼쪽의 그림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chatGPT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리는 코드를 배우지 않더라도 코딩할 수 있는 시대임
 -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의존할 것인가, 기술의 원리를 가르칠 것인가
 - 저널리즘은 기술인가, 원칙인가, 윤리인가..

“인공지능 등 기술은 저널리즘적 감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증강할 뿐이다. AP는 기계들이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기사를 더 잘 쓰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작업 과정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기계보다 인간의 강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단지 자동화된 과정을 위해 기사 작성을 자동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 뉴스룸에서 사람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crucial)이 될 것이다.”(Marconi & Houshmand, 2018. 3. 13.)

“에디터들은 뉴스룸의 내부 작동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칼럼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뉴스룸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Bhatia, 2017. 2. 15)

감사합니다~